





우리는 지금 흉남가스화대상 건설장에 서있다. 짧은 기간에 단사함을 놀래우는 대기적이지 창조된 성스러운 땅이다.

하늘을 깨뜨리며 거창하게 솟아오른 수소정제탑들과 탄산가스흡착탑들, 풍사장을 막 메운 각양각색의 건축구조물들... 과연 그 무엇이 이런 대기적, 대변혁을 안아왔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전체 당원들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새기고 대고조의를 선봉으로 오늘의 순간순간을 값높은 헌신과 위훈으로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흉남가스화대상 건설자들이 가스화 1제련공장에서 흉남의 기적, 조건의 기적을 창조하던 격전의 39일의 일단을 펼친다.

격전의 39일!

정경 시간으로 흐른 날들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지난 1월 흉남가스화대상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그 다음날이었다.

흉남비료연합기업소의 당, 행정일군들의 협의회에서는 이런 불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동무들, 지금 온 나라가 우리 흉남을 지켜보고있다. 가스화대상건설의 주인은 우리들이다. 바로 우리 흉남의 당원들이 하루빨리 가스화공정건설을 앞당겨 끝내고 위대한 장군님께 승리의 보고, 기쁨의

# 선군천리마를 타고 대기적, 대비약을 안아온 선봉투사들

## 흉남 가스화 대 상 공 사 에 동 원 된 당 원 들 의 투 쟁

보고를 드시자, 당책임일군인 김태문동무의 호소에 지배인과 기사장을 비롯한 흉남의 일군들과 당원들은 서로 서로 손뼉을 엄숙히 들었다.

제일 추운 날 또다시 건설장을 찾으며 일을 많이 했다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을 가슴마다에 새겨안은 흉남당의 당원들은 이렇게 장군님의 현지지도강령순속에도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가스화 1제련공사를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전투에 들어갔다.

흉남가스화대상공사는 단순한 나라의 비료공업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경제실무적인 공사만이 아니었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와 봉쇄책동속에서 우리가 일떠서는가 아니란 주지않는가 하는 사상의 대결전, 정신력의 대결전이었다. 흉남에서 비료가 쏟아져나오기를 바라지 않는자들,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지 않는자들이 비열한 제재책동을 가해왔을 때 가스화대상건설에 참가한 당원들의 심장박동에서는 어떤 신념의 분출이 터져나왔던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조선로동계급의 본래를 보여 주시!》

투쟁기계연합기업소의 당원들이 신심드높이, 용기백배하여 떨쳐일어났다. 난관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갈사관철의 정신으로 뚫고나갔다.

1제련직장에서 수소정제탑과 탄산가스흡착탑을 제작할 때의 일이다.

탑의 내면용접을 위한 전투를 놓고 1제련직장 직장장정 수직동무는 신트 결심을 내리지 못하였다. 한것은 탑의 내부를 용접할 때에 용접가스가 쉽게 빠져지 않았기때문이었다.

그때 총경리, 리호인동무를 비롯한 당원들이 앞에 나섰다. 《직장장정들, 우리가 언제 쉬운 길만 걸었습니까. 결심하십시오.》

《우리 당원들이 결사대를 뚫고 기어오를 완성이겠습니까.》

물론 가스가 빠진 다음 탑을 안전하게 완성할수도 있었다. 그러나 총경리의 신념과 의지는 이렇게 남김없이 과시되었다.

흉남가스화대상공사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는 설비조립연합기업소전투장에서 벌어졌다. 가스화 1제련공사의 중요한 임무를 맡은 기업소의 방대한 공사량을 놓고 공사초기에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각종 탑들을 세우고 배관들을 조립하는데만 6개월은 걸릴 것 같다.”

그러나 힘있는 부대, 력사가 있는 건설부대로 자발적으로 설비조립연합기업소의 당원들은 그 기간을 도저히 인정할수 없었다. 그 어떤 조건이 좋아서 가 아니었다.

연공직장 연공들이 수소정제탑을 설치할 때에 있는 일이다. 그날따라 세한 바다바람이 불어치면서 탑을 들어올리던 기중기가 중심을 잡지 못하여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때 남먼저 고인목을 들고 중앙관제실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었다. 《기중기, 탑을 내리라!》

벼락같은 설비조립과 함께 비교같이 몸을 날려던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육중한 탑들이 유박해들어가는 그 연공직장 초급당비서 김영철동무였다.

그의 뒤를 따라 당원들인 리동호, 정도선동무들도 탑 밑에 자기의 한몸을 서슴없이 들이댔다. 위험한 일인줄 알면서도 순신의 주저도 없이 격전장에 용감히 뛰어든 당원들인 주유현, 진광일, 리철근, 류원철동무들의 무비의 희생적 인 투쟁에 대해서 어찌 여기에 다 적을수 있으랴.

상상할수 없는 시련이 막아설 때마다 갈사관철의 정신을 지닌 이런 당원들의 불굴의 정신력에 떠받들려 수소정제탑을 비롯한 열교환기, 펌프기, 변압기, 탄산가스흡착탑 등 수십대의 현대적인 설비들이 시간을 앞당겨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그들만이 아니라 단련광업 건설연합기업소의 당원들은 하루에 평균 22의 내화벽들을 쌓음으로써 한달이상 걸린다고 하던 3세보이와 연소로 축로작업을 단 17일동안에 끝냈다.

뿐만아니라 합성산업건설사업소, 화학건설연합기업소 등 가스화대상공사에 동원된 모든 당원의 당원들은 물탱크공정, 가스프로그래밍 등 제기되는 각종 장치물들의 제작과 설치를 당원들이 조야박은 날자까지 기어이 완성하여 불가늠을 모르는 당원들의 결심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천원을 책임지고 만단을 보증할수 있게!”

흉남의 당원기술자들의 창조적열정은 또 얼마나 뜨거웠던가.

흉남비료연합기업소의 설계사 당원인 한철동무, 기능공이 며 오랜 당원들인 지동명, 박춘실동무들은 대형압축기시운전과 공기과파기계작을 비롯하여 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여 실천투쟁속에서 조선의 기술자당원들의 본래를 보여주었다.

투쟁기계연합기업소 기술자당원들은 발전된 몇개 나라만이 만들었다는 최신식대형기계설비들과 집체같은 옹축분리함, 수소정제탑, 합성탑을 비롯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투쟁에 들어갔을 강철구조물들과 줄줄이 떨어진 배관들마다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리며 시련과 난관을 뚫고헤쳐 온 흉남의 당원들의 불굴의 정신력, 순결한 마음이 그대로 비껴있는것이다.

지난 3월 10일, 39일만에 흉남가스화대상건설장을 또다시 찾아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높은 기술과 수많은 최신식설비들을 필요로 하는 어렵고 방대한 공사를 1년반사이에 기본적으로 끝낸것은 건설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기적이요 하신말씀이 이것이 바로 남들이 한결을, 열결을 걸을 때 백결을, 천결을으로 내달리는 새로운 천리마속도, 조선의 속도라고 말씀하시었다.

바로 이런 조선의 속도 창조자들이 흉남당의 당원들, 조선의 당원들이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힘차게 열어나가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웅대한 강령대국건설구상은 바야흐로 이 땅우에 자랑스런 현실로 펼쳐지게 될것이다.

영웅적조선로동당원들이여!

선군천리마를 타고 대기적, 대비약을 안아온 흉남의 당원들처럼 대고조건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선봉투사가 되시!

강성대국건설의 대문을 힘차게 열어제끼라!

본사기자 최영길  
본사기자 채인철

### 더 높은 광물생산성 과로

상서 청년 광산에서

상서청년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광물생산에서 련일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며 기세 흥겨 내달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매달 말겨진 광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광산에서는 1.4분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4월에도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의 올바른 령도가 있고 당에 충실한 훌륭한 인민이 있고 세상에서 으뜸가는 사회주의제도와 자체의 튼튼한 경제대대가 있는 이상 우리는 경제분야에서도 앞마르지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킬수 있습니다.》

광산조직에서는 공동사설의 선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불러일으

키는 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광산의 일군들은 들끓는 격박장들을 맡고 나가 이신작적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면서 오늘날의 대고조에서 모두가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적극 고무 추동하였다.

혁신의 불길은 광물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전진에서 새차게 타올랐다. 광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막대한 작업조건에 맞게 새로운 발파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매일 말겨진 광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황은조채광소대와 김철호채광소대를 비롯한 광의 여러 소대들의 로동자들은 계절장편리를 짜고들어 매일 광물생산계획을 120%이상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었다.

부흥갱에서는 유망한 채광장을 마련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확고히 하고 정진에 힘을 넣으



기대마다 만부하의 동을 힘차게 올려 퍼진다 - 신의 주방직공장에서 - 본사기자 찍음

질 좋은 건재와 목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자

### 대담한 목표, 완강한 실천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력을 높이는것을 세멘트생산에 끌어올릴수 있는 중심고리의 하나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설비들을 련합기업소자체의 힘으로 개조하지 않으면 기술적문제를 해결해야 하였다. 기성판례로 놓고볼 때 전문공장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였다. 생산을 하면서 설비개조전투를 벌리는것도 아름했지만 여기에 드는 노력과 설비, 자재도 엄청났다.

일군들이 공사일정을 따져보니 적게 잡아도 여덟달은 걸릴 것 같았다. 하지만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일떠세운 창조물이 실리도 크며 정량도 확고하다.

이렇게 생각한 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생산장황이 자기 중요대상건설의 결구이라는 자각을 안고 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개조할 눈

### 창조적인 일 본새

청 단 종 축 장 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축산물을 발전시키면 질 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하며 부집양도 결국수 있습니다.》

최근 청단군을 찾는 사람들은 몰라보게 달라진 군종축장을 돌아보고 감탄을 금치 못해 하고있다.

규모있게 건설된 여러동의 폐지우리와 각종 먹이가공설비들, 철거제에 의한 밭포터이생 산시설들과 태양열담배오실, 번듯하게 꾸러진 사무실과 종업원식당 등 잘 꾸러진 종축장이 우리 식이 제일이라는 진리를 실천으로 확증한 이곳 세멘트생산자들은 내화물생산과 원료보장계통설비들의 가동률도 더욱 높아져갈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대고조시대의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지원철

### 제품의 질을 높여

요덕가구공장에서

요덕가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생산적양양의 불길에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의 일군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맡겨진 생산과제를 어렵지 않게 수행해나감으로써 종업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는 한편 자체보장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조직을 능동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제배인을 비롯한 일군들과 제별작업반원들은 가구생산에 필요한 목재를 보장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 있다. 이들은 제재기를 비롯하여 목재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을 합력적으로 개조하여 각종 규격목재를 정상적으로 생산보장하고있다.

공장에서는 가구들의 종류를 높이고 그 질을 한계

### 기술개건사업을 착실히

평양목재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현시기 사회주의경제 건설에서 중요한것은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며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평양목재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목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기술개건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질 좋은 목제품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공정설비들의 기술개건에 힘을 넣었다.

이들은 기술자, 기능공들이 참가하는 협의회를 자주 열고 기술혁신과제수행형에 대한 총화와 평가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그들모두가

### 기술개건사업을 착실히

한가지이상의 가치있는 기술혁신들을 내놓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결과 짧은 기간에 나무자투리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가치있는 안을 비롯하여 수십건의 창의고안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도입하는 과정은 험치 않았다.

당면한 생산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술개건을 동시에 내밀나 노력과 자재를 비롯하여 부족한것이 많았고 여러차례의 실패와 우여곡절도 있었다.

하지만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생산공정을 현대화하여 질 좋은 목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 한마음으로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었다.

본사기자 정경철

### 제품의 질을 높여

요덕가구공장에서

단 넘어가는데 모를 박고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들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줄기차게 내밀고있다.

가공작업반원들과 완성작업반원들은 기술능수준을 높이고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제품마다에 온갖 정성을 쏟아부었다.

이불장, 옷장 등 공장에서 생산되는 가구들은 그 종류가 다양할뿐만아니라 질이 좋은것으로 하여 군대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공동사설의 전투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생산동력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공장일군들과 로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공 춘 섭

### 기술개건사업을 착실히

평양목재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현시기 사회주의경제 건설에서 중요한것은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며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평양목재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목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기술개건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질 좋은 목제품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공정설비들의 기술개건에 힘을 넣었다.

이들은 기술자, 기능공들이 참가하는 협의회를 자주 열고 기술혁신과제수행형에 대한 총화와 평가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그들모두가



본사기자 지원철





